

The Media Korea

Email : themediak@gmail.com Tel : 021-3002-9090 광고문의 : 0858-9060-0962, 0815-1066-5868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 제 100회 전국체전 출정식을 개최.

한국어 계속 공부하고 싶어요!

한국어 파견교사 비자 연장 안되
어렵게 만들어 낸 정규 교과 과목 채택 ...
학교 예산부족으로 힘겨운 싸움



10여년의 노력과 정성으로 어렵게 이루어 낸 한국어 정규교과과정이 예산부족으로 난항을 거듭하게 되었다. 지난 2017년 인도네시아 민간단체인 인우회에서 10여년의 정성과 노력으로 인도네시아 실업계고등학교 SMK N1에 한국어가 정규교과과목으로 채택되었다. 채택 이전에는 인우회의 지원으로 방과 후 한글학교 운영을 해왔고 학교측에 지속적인 지원을해 학교장을 비롯한

많은 학생들에게 한국어 알리기와 교육을 이어 왔었다. 비로소 2017년 제2외국어로 정규교과과목에 채택된 기쁨도 잠시 당장 수업해야 할 교과서구매와 한국어를 가르킬 교사문제등이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다. 채택 당해에 1학년 500여명부터 수업을 진행해 현재 1학년 14학급 504명, 2학년 14학급 504명, 3학년 14학급 404명 총 1512명으로 기존 방과 후 수업에 비해 갑자기 늘어



났다. 10여명의 인우회 회원들이 십시일반 자비를 모아 교과서 문제와 교사문제, 한국교육을 위한 교실 환경 문제등을 하나하나 해결 해 왔지만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학생을 위한 교재와 교사문제를 부족한

학교예산으로 해결하지 못해 민간단체인 인우회에서 추가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대사관에서 교과서 500권씩 지원하고 부족분은 인우회에서 구매했지만 올해부터는 교과서 1,000권을 대사관에서 지원 해주고 있고 코이카, 한국 교육부등을 통해 교사 파견 문제등을 일부 해결해 나가고 있지만 교사 파견 문제는 국가간의 문제로 인해 실제 학교의 교육현장에 시원한 해결책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0일 SMK N1



의 한국어수업 참관을 마치고 학교장과 인우회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현재 파견되어 수업을 하고있는 한국어 교사 2명이 다가오는 12월 비자연장이 안되어 한국을 돌아 가야하는 상황으로 학교의 한국어 수업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된다. 당장 한국어과를 졸업한 인도네시아교사가 한글 수업을 진행하게 되지만 인도네시아 교사의 대우문제가 매우 열악해 제대로 된 한글 수업의 진

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어렵사리 만들어 놓은 한국어 정규교과과정이 자칫 고사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또한 하지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더불어 10여년 전부터 개인의 자비를 모아서 지원 해오는 소수의 인우회 회원의 힘 또한 점점 힘겨워져 가는 상황으로 우리 동포사회에서 좀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인우회는 이러한 사안들을 해결하고자 한국어 교육을 위한 지원에 동참하고자 하는 회원을 더 늘려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우리 동포의 각 기관과 단체 또는 개인의 후원이 적극 필요하다고 본다. 작은 정성 하나하나를 모아 한국어 정규교과과목 채택을 원하는 학교가 더 늘어나게 하는것이 우리한인동포 모두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인우회 한국어교육 지원사업에 함께 하실분은 **인우회 회장 신동수** 0811 818 826 또는 **사무국장 박영일** 0811 810 731로 전화하면 인우회 관계자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후원 계좌** 은행명 : CIMB TANGERANG KARAWACI **계좌번호 :** 470-01-01720-11-3 **예금주 :** OH JOO MI

KOREAN PROMO 2019

MODERN GOLF & COUNTRY CLUB

주중	IDR 575.000	Include Cart
토요일 오후	IDR 1.700.000	Include Cart
	IDR 1.460.000	Walking
일요일 오후	IDR 1.500.000	Include Cart
	IDR 1.260.000	Walking

*Valid for Korean only.
*Valid until 31 December 2019.
*Player must show passport or KIMS/KITAS upon registration.
*Terms & conditions applied

BUY 1 PITCHER GET 1 FREE PITCHER

BUY 3 GLASSES GET 2 FREE GLASSES

WEEKDAYS PROMOS!

BUY 4 PAY 3 ITEM FOOD

*Price is subject to 21% of government tax & Service charge
*All promo Valid on Weekdays only
*Terms & conditions applied

For further information & registration please contact **+6221 552 9228**

marketing@modern-golf.co.id www.modern-golf.co.id

Modern Golf & Country Club modern-golf_countryclub

제 100회 전국체전 재인도네시아 선수단 출정식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는 9월 27일,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강당에서 전국체전 출정식을 개최하였다.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강희중회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부터 처음으로 출전하게 된 검도도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배드민턴경기에 새롭게 출전할 예정이다. 선수들은 새로운 각오로 각자의 목표를 달성해 주길 바란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앞으로 북한과의 스포츠 교류도 활발해질 것이다. 인도네시아 한인동포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장범대사는 “빨간 유니폼을 입고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이다. 가장 큰 규모의 100회라는 상징이 갖는 의미가 크다. 새로운 선수들의 기량이 드러나며 한인사회가 하나 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선수단을 격려했다.

박재한한인회장은 “한인동포들은 승전보를 기다리며 한인동포들이 한마음으로 응원할 것이다. 선수와 임원단은 아무 사고 없이 서로 격려하고 화합하여 좋은 추억과 감동이 함께 하는 전국체전이 되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김태화 단장은 “일제의 질



곡 속에서도 용솨음쳤던 체육인들의 정열과 투지는 전국체육대회가 틀이 잡힐 무렵인 1951년 전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광주에서 제32회 대회를 치를 정도로 대단했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 인도네시아 선수단도 그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투지를 보였다.

이어 방진학 사무총장의 출정보고, 선수대표(축구 최창욱, 볼링 성윤경) 선서, 김태화 단장에게 단기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출정식을 마치고 선수(본부 15명, 축구 21명, 볼링 18명, 태권도 14명, 테니스 11명, 골프 9명, 탁구 7명, 검도 9명, 스쿼시 7명)와 임원 111명, 경기참관인 25명으로 총 136명이 전국체전을 위해 한국으로 떠날 예정이다.

1920년 7월 13일 조선체육회가 창설된 후의 첫 행사로 그해 11월에 배재고보 운동장에서 개최된 제1회 전조선야구대회를 기원으로 전쟁 중에도 이어간 전국체전은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한다. 10월 4일에서 10일까지 서울에서 펼쳐지며 인도네시아 팀은 8개 종목에 출전하여 17개국 해외동포 선수단과 메달 경쟁에 돌입한다.

한인뉴스

인도네시아 세제 개혁안... 체납자 처벌 규정도 완화



인도네시아 정부는 법인소득세(PPH)의 인하를 포함하여 대규모 세제 개혁의 일환으로 세금 미납자나 체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완화할 방침이다.

9일자 비즈니스인도네시아의 보도에 따르면, 악의적이지 않은 체납자에 온정으로 납세 의식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세수의 안정적 확보에 연결시킨다는 방침이다. 인도네시아 재무부의 법안에 따르면 (1)연간 법인세 세무신고서(SPT)가 잘못 추정된 경우 (2)세금 신고가 접수되고 수정통지(SKP)가 접수된 경우 (3)부가가치세(VAT) 과세 사업자(PKP)이면서 기한내에 적절한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4)PKP로 인증을 받기 위한 사업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4가지 경우에 대해 처벌 규정을 개정한다. 구체적으로는 (1)의 경우 중

양은행(BI)의 정책 금리 값에 5%를 더해 12로 나눈 수, (2)는 정책 금리에 10%를 더해 12로 나눈 수를 각각 1개월당 연체 세율로 한다. 현행 규정에서는 모두 미납액의 2%(최대 24개월)로 하고 있다. (3)과 (4)는 과세 표준액의 1%로 한다. (3)은 현행 규정에서는 2%다.

업계 전문가는 “현행 규정에서는 세금 미납자나 체납자에 대한 벌금 부담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고서의 실수나 납세 지연은 그다지 국가의 손실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처벌 규정의 완화를 환영했다.

인도네시아, 외국인 근로자(TKA) 고용 확대 부문 발표

인도네시아 노동인력부(Kemnaker)는 외국인 근로자(TKA)의 고용 가능 18개 부문을 인력부장관령(Kepmenaker 228호)으로 발표했다.

18개 부문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설 Construction
2. 부동산 Real Estate
3. 교육 Education
4. 가공산업 Processing Industry
5. 수질관리, 폐수관리, 폐기물관리 및 재활용, 교정활동 Water Management, Waste Water Management, Waste Management

and Recycling, and Remediation Activities

6. 교통과 창고 Transportation and Warehousing

7. 예술, 엔터테인먼트 및 레크리에이션 Arts, Entertainment and Recreation

8. 숙박 및 식음료의 제공 Provision of Accommodation and Provision of Food and Beverage

9. 농업, 임업, 수산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10. 옵션 권한이 없는 임대 및 리스, 고용, 여행사 및 기타 비즈니스 지원 Rental and Leasing Activities

without Option Rights, Employment, Travel Agencies, and Other Business Supports

11. 금융 및 보험 활동 Financial and Insurance Activities

12. 보건활동 및 사회활동 Human Health Activities and Social Activities

13. 정보통신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14. 채굴과 채석 Mining and Quarrying

15. 전기, 가스, 증기/온수/냉기 조달 Procurement of Electricity, Gas, Steam / Hot Water, and Cold Air

16. 도소매 무역, 자동차 및 오토바이 수리 및 정비 Wholesale and retail trade, repair and maintenance of cars and motorbikes

17. 기타 서비스 활동 Other Service Activities

18. 전문, 과학 및 기술 활동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Activities

건설 부문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채용 가능 직책은 IT 시스템 관리자이며, 부동산 부문은 마케팅 전문 총지배인, 교육 부문은 고등학교 선생님 및 교장 등이다.

그 이외의 부문 중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가능 직책은 전문 관리자(Expert manager), 전문가(specialist), 어드바이저(Advisor) 등이다.

카렌다 제작을 시작으로 2020(庚子年)년을 준비하세요!

도서출판/인쇄 광개토

2020



광개토에 카렌다 제작을 의뢰하시면

1. 탁상용, 벽걸이용 카렌다를 고객의 기호에 맞게 디자인, 제작해 드립니다.
2. 약 20만컷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무료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3. 촬영을 원할 경우 출장 촬영 가능합니다.
4. 귀사의 현장과 생산제품, 설비등의 이미지로 차별화된 제작 가능합니다.
5. 제작전 사전 디자인된 카렌다를 PDF로 먼저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제작 의뢰는 : 0858 9060 0962, 021 3002 9090 / 91 입니다

인니 현대차 공장 건설에 日업체가 주요 역할...교민사회 발끈 현대차 “시행사와 턴키 계약방식...시공사 선정은 관여 안 해”

소지프 소유 부지 내달 계약 ... 현대엔지니어링-다케나카 손잡아

현대자동차의 인도네시아 신규 공장 건설에 일본 5대 건설사 중 하나로 꼽히는 다케나카(Takenaka)가 주요 역할을 맡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교민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29일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와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가 브카시 텔타마스공단에 공장을 지으면서 현대엔지니어링이 토목·철골·전기·설비·건축 등 대부분 공사를 다케나카와 그 하청업체들에 맡기기로 했다는 소식이 퍼졌다.

또, 한국 업체가 공사에 참여 하더라도 앞서 현대기아차 인도, 터키, 멕시코 공장건설 경험이 있는 업체들이 참여하고, 재인니 한인 업체들은 참여 기회를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사 관계자는 “현대차 프로젝트가 교민 경제에 활력을 주리라 믿었는데, 참여 기



회를 얻지 못해 서운하다”고 주장했다.

B사 관계자도 “작년부터 현대차 관계자들이 자카르타에 들어와서 일감을 줄 것처럼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다녔는데 정작 일본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고 발끈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자동차는 “공장 건설은 턴키 계약방식으로 체결하기에 시행사 한 곳만 선정할 뿐, 시공사 선정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며 “시행사로 유력한 현대엔지니어링이 사전에 팀을 꾸리면서 다케나카를 파트너로 정했다고 한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이어 “다케나카는 이전에 다른 나라의 현대차 공장을 지을 때 현대엔지니어링과 손발을 맞춘 경험이 있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자동차 공장을 지은 경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외국 회사가 건설공사를 하려면 외국회사와 현지 업체가 67대 33 비율로 참여해야 한다. 다케나카가 이미 현지 법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엔지니어링이 다케나카의 손을 쉽게 잡았다는 해석도 나온다.

현대차는 “전체 공장건설에는 많은 건설사가 시공사로 참여한다”며 “일본 업체뿐만 아니라 현지 건설사, 현지 진출한 국내 건설사 등도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을 갖추면 프로젝트에 합류할 수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현대차는 “인도네시아 공장을 건설할 확률이 매우 높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시행사로 현대엔지니어링이 가장 유력하지만, 이 또한 계약을 체결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전체 공장건설에는 많은 건설사가 시공사로 참여한다”며 “일본 업체뿐만 아니라 현지 건설사, 현지 진출한 국내 건설사 등도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을 갖추면 프로젝트에 합류할 수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현대차 인도네시아 공장 건설 공식 발표는 오는 11월 25~26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맞춰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양국 대통령 참석한 가운데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에는 이미 현대차 본사 직원은 물론 현대엔지니어링과 유관회사 직원들이 대거 들어와 ‘신희’만 떨어지면 공사에 착수할 준비를 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자카르타에서 동쪽으로 40km 떨어진 브카시 텔타마스 공단에 일본 회사 소지프와 인도네시아 회사 시나르마스가 소유한 70ha를 공장용지로 선정하고 다음 달에 토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텔타마스 공단에는 이미 일본 자동차사인 스즈키와 미쓰비시가 진출한 상태다.

이를 두고 “땅값이 싼 것도 아니고, 인건비가 싼 것도 아니고, 굳이 일본업체들이 꼭 차 있는 곳을 왜 선정했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연합뉴스]

19기 민주평통 동남아남부협의회 인도네시아 자문위원 위촉장 전수식

송광종 동남아남부협의회장 “동포사회 평화통일 에너지 결집 위한 자문위원 돼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회장 정세현) 동남아남부협의회 소속 인도네시아 19기 자문위원 44명에 대한 위촉장 전수식이 지난 9월 24일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에서 열렸다.

민주평통 의장인 문재인 대통령의 위촉장을 대신 전수한 김창범 주인도네시아대사는 “평화통일이라는 어려운

길을 가는데 자문위원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지속적인 대화국면은 좋은 결과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된다”며 “인도네시아 한인사회 일원으로서 공공외교에 최선을 다하며 한마음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송광종 동남아남부협의회장은 “19기 민주평통 동남아협의회 자문위원들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문화와 정서를 잘 이해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훌륭한 분들이 위촉됐다”며 “

적극적인 평화통일 공공외교와 함께 동포사회에서 평화통일 에너지 결집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위촉장 전수식 후에는 자문위원 간 상견례를 통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서 동남아남부협의회 19기 임원 선출이 있었다.

한편, 민주평통 동남아남부협의회는 오는 11월 1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19기 출범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동남아남부협의회는 인



▲ 민주평통 동남아남부협의회 소속 인도네시아 19기 자문위원 44명에 대한 위촉장 전수식이 지난 9월 24일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에서 열렸다. (사진 민주평통 동남아남부협의회)

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동티모르, 브루나이 등 5개국 자문위원이 소속된 협

의체다. 19기 민주평통 동남아남부협의회 임원단은 다음과 같다.

- ▲협의회장 송광종 ▲수석부회장 이세호 ▲감사 이진수 ▲부회장 이주한, 이지완 ▲협의회간사 우용택 ▲재무간사 이은진 ▲대외홍보분과위원장 나성문, 박시은, 김동환, ▲청년분과위원장 하영빈 ▲여성분과위원장 남기인 ▲지역회의분과위원장 이정휴

[재외동포신문]



BS 476 Fire Test “CLASS 0”

인도네시아 최초 획득...

건축 자재 (Building and Construction Materials)



■ Duct / Pipe / Roof Insulation(보온 단열재)

가방 제조업체 부자재 공급 및 가공 (Bag Materials)



자동차 내장재(전자선 가교 폼): Door Trim, Sun Visor, Headliner 등
스포츠&레저(실내 및 야외매트, 구멍조끼, 수영보드, 헬멧 및 장갑, 신발 Insole)

두께 : 2mm ~ 50mm , Density : 25kg/m3 ~ 200kg/m3

본 사 : Jl. Raya Serang KM. 16, 8 Desa Telaga Cikupa, Tangerang 15710 Indonesia
 T E L : (021) 5940 4086, 5940 4087 FAX : (021) 5940 4084
 한국인 직통 : 0815 1902 0499(제환영부장) E-Mail : yjeh@toilon.co.id / yjeh@toilonindo.com Website : www.toilon.co.id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46주년 ... 신남방정책 핵심 파트너

양국 관계 점검하는 콘퍼런스...다방면 협력 의지 확인



한국과 인도네시아 수교 46주년인 18일 자카르타에서 양국 관계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으로 점검하고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콘퍼런스가 열렸다.

김장범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는 “인도네시아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해 신남방정책을 처음 선포한 곳이자 핵심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 달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인니 관계의 청사진을 고민하는 오늘 자리가 시의적절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우마르 하디 주한국 인도네시아 대사는 “한국-인도네시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양국은 연내 CEPA 타결을 목표로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협력 및 총칙의 6개 분야로 나눠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국가 중 한국의 2대 교역국(2018년 교역액 200억 달러)이며, 자원이 풍부하고 젊은 인구가 많아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꼽힌다.

하디 대사는 “인도네시아의

한국 수출 30%를 석탄이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양국 정상은 2017년에 선언한 2022년까지 300억 달러 교역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이르랑가 하르파르도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은 이날 콘퍼런스에서 양국의 교역과 투자 현황을 발표하고, 조코 위 2기 정부가 인적자원 개발과 해외투자 유치를 주요 목표로 설정했음을 설명했다.

그는 “투자유치를 위해 지속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노동집약적 산

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세금 감면과 노동시장 개혁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서 리잘 아판디 룩탄 경제조정부 차관은 한국의 경제 급성장 요인으로 ▲ 수출 장려 ▲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 ▲ 기술개발과 혁신을 위한 노력 ▲ 인적자원 개발 투자 등 네 가지를 꼽았다. 항공수박예약 현지 유명 업체인 ‘트래블로카’ 테니스 무함맛 마케팅 상무는 “K-팝과 K-푸드 등 한류 인기가 대단하다”며 “올해 인도네시아 관광객이 방문한 국가 중 한국이 일본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산토 다르모수마르도 인도네시아 외교부 동아시아태평

양 국장은 이날 한반도 정세와 관련, 인도네시아와 북한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인도네시아는 북한과 1964년에 먼저 수교했고, 한국과는 1973년 9월 18일에 수교했다.

다르모수마르도 국장은 “인도네시아는 평양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라며 “항상 한반도 문제와 지역안보에 관심을 두고 있고,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네시아는 남북 대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난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이낙연 국무총리와 리룡남 북한 내각 부총리가 함께 참석했던 사례를 소개했다.

[연합뉴스]

인니 조코위 2기 정부 내달 출범...韓 기업들 투자 모색

재인니 코참 세미나에 130여명 참석 ... “정보가 경쟁력”

재선에 승리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2기 정부가 내달 20일 출범하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모색하고 나섰다.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이하 코참)와 한국무역협회 자카르타지부는 2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간다리아 웨라톤호텔에서 ‘인니 진출 우리기업 투자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건설사부터 식품, 화장품 업체에 이르기까지 한인 130여명이 참석해 인니 새 정부의 경제 전망과 유망 투자 분야, 진출전략에 관심을 보였다.

송창근 재인니 코참 회장은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경쟁력”이라며 “조코위 대통령이 앞으로 5년간 수도 이전 등 투자유치와 경제성장을 위해 강력한 리더십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기업이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안다’가 아니라 이 나라 법을 잘 알고, 준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미래에셋대우 심태용 이사는 “인도네시아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깔리만판(보르네오섬)으로 이전하는 정책에는 경기 부양 의도가 내재해 있다”고 말했다.

심 이사는 “막대한 개발사업에는 노동 인력이 필요하고, 이들의 소득이 늘면 자연스러운 경기 부양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연 인니 국회가 수도 이전을 쉽게 동의할지에는 의문이 있다”며 “의원들이 자카르타에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수도 이전 예산이 너무 크다 보니 조달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아 마냥 기대감을 갖기에는 불확실성이 많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그린 네이처 팜의 임준환 대표는 ‘할랄 시장의 이해와 인증 및 진출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임 대표는 “인도네시아의 할랄 시장규모는 작년 기준 1천810억 달러로 세계 최대 시장”이라며 “인니 할랄 시장 공략을 위해 세계 각국에서 인니 할랄 인증을 따르는 추세”라고 중요성을 설명했다. 재인니 코참은 11월 16일에는 한인 기업들을 위해 ‘수도 이전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공공사업부, 연내 9개 댐 건설 입찰 실시



인도네시아 공공사업·국민주택부는 18일 올해 9개 댐 건설 사업 입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2015~2019년에 계획한 총 49개소 댐 건설 사업에 동 9개 댐 사업도 포함되

어 있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18일자 보도에 따르면 댐 9개소는 동남 술라웨시의 빠셀로렝(수용량 5억 9,000만㎥), 남부 술라웨시 제네라따(2억 2,472만㎥), 중부자바주 즈라궁(1억 2,900만 입방미터), 남부 깔리만판 리암 끼와(1억 1,057만㎥) 등이다.

바수끼 공공·국민주택장관은 “수자원 및 관개 시설을 관리해 농가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실크로드 디자인 연구소는 코파의 힘, 봉제협회 코가지, 미디어 코리아, 건설신문 창조를 발행 해 왔고 기업 CI, 홍보용 카달록, 북 디자인외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 해 왔습니다. 이제 직접 인쇄공정을 수행 해 낼 수 있는 설비와 시스템을 갖추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늦각이 출발이지만 항상 곁에서 함께 하길 바랍니다.

고객의 마음을 훔치겠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제작합니다

카달록 / 도서출판 / 브로슈어 /스티커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0858-9060-0962
khong3000@gmail.com



현대엔지니어링, 발릭빠빰 정유공장 플랜트 수주

현대엔지니어링은 인도네시아 국영석유회사인 빠르따미나(Pertamina)가 발주한 동부 깔리만판 주에 있는 ‘발릭빠빰 정유공장 고도화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최근 시공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전체 39억7천만달러 규모의 플랜트 공사로, 이 가운데 현대엔지니어링의 지분은 21억7천만달러(한화 약 2조6천억원) 규모에 달한다.

발릭빠빰 정유공장은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북동쪽으로 약 1천km 떨어진 동부 깔리만판 주 발릭빠빰 시에 위치하며, 지난달 26일 발표된 인도네시아 새 행정수도 부지와는 불과 20km 거리로 인접해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앞으로 이 정유공장의 기존 정유설비를 고도화하고 유로5(EURO V) 표준을 충족하기 위한 설비를 건설한다.

이번 공사를 통해 기존 원유 정제 능력인 일일 26만배럴에서 36만배럴로 생산량을 확대하고, 설비를 추가해 강화되는 환경규제인 유로5 기준을 만족하는 환경 친화적인 연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와 관련된 모든 공정을 EPC(설계, 구매,



시공) 턴키 방식으로 수행하게 된다. 공사 기간은 착공 후 53개월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에 수주한 공사는 인도네시아 정유개발 마스터플랜이 가동되는 첫 번째 사업”이라며 “앞으로 빠르따미나가 계획하고 있는 대규모 정유설비 프로젝트의 수주 경쟁에서 당사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분 100%를 보유한 빠르따미나는 현재 2026년까지 원유 정제능력을 현재 하루 10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로 확충하기 위해 총 300억달러를 투입하는 ‘정유개발 마스터플랜’ (RDMP, Refinery Development Master Plan)을 수립하고 정유설비 현대화 및 신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데일리인도네시아]

인니 재무부, 인재 육성 기업에 최대 200% 공제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최근 인재 육성과 연구개발(R&D)에 주력하는 기업에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것 등을 정한 법인소득세(PPH) 면세 조치에 관한 정령 ‘2019년 제45호’의 세칙 규정을 시행했다. 재무장관령 ‘2019년 제128호’로 지난 6일에 공포, 9일에 시행했다.

현지 각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재 육성에 관련한 지출에 대해 최대 200%의 공제를 인정하는 것을 규정했다. 재무장관령에 따르면, 인재 육성 관련 지출의 공제는 우선 수입에서 비용의 100%를 공제하고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최대 100%를 추가 공제한다. 추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대상이 되는 특정 기능에 대한 인재 육성 활동을 실시



▲스리 몰야니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

(2)전문학교나 직업학교, 직업 소개소 등과 협력 관계를 유지 (3)당해 과세 연도가 적자가 아닌 경우 (4)납부완료 증명서(SKF)를 제출하는 등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정령 2019년 제45호는 이 밖에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해 최대 300%의 공제를 인정한다고도 규정했지만, 현재까지 세칙 규정은 공포되어 있지 않다.

아이르랑가 산업장관 “제조업 강화에 한국투자 적극 유치”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국내 제조업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 안파라뉴스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아이르랑가 산업장관은 18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인도네시아-한국 컨퍼런스에서 “한국이 인도네

시아에 투자하는 규모는 상당히 크다”라고 말하며 “철강 산업 부문에는 포스코, 화학 산업에는 롯데 케미컬 등 대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투자조정청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1분기 인도네시아의 8번째로 큰 투자국가로 나타

났다. 2014년부터 2019년 1분기까지 한국의 인도네시아 투자실현액은 총 73억 달에 달했다.

이에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앞서 유익한 투자분위가 조성되고 인센티브 제공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이르랑가 산업장관은 “



양국 상호이익을 위해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을 최대한 빨리 체결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IK-CEPA를 통해 2020년 한-인니 무역규모 300억 달러 달성이 목표이다”라고 덧붙였다.



소중한 새싹

갓 피어난 새싹처럼 소중한함을 알고 있습니다 세찬 풍파 속에서도 항상 열린 마음으로 고객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푸른 새싹이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멘토를 아낌없이 하겠습니다.

JC PT. JOO CONSULTANT

Office : Karawaci Office Park (Ruko Pinangsia) Block D37 Lippo Karawaci Tangerang
Tel : (021) 558 1618
Email : joo_consultant@hotmail.com/jooconsultant@hanmail.net

TOILON
ROOF
SINCE 2003
단열재 지붕 벽체 전문생산업체

PT. TOILON INSU PANEL
Jl. Raya PLP Curug – Tangerang
Telp. (021) 5579 7181 Fax. (021) 5576 9926
Mobile. 0811 843 211
Web. www.toilon-insupanel.com

쾌적한 근로환경은 친환경 단열이 우선!

토일론 단열 지붕의 장점

1. Anti Panas 단열효과
2. Anti Bising 흡음효과
3. Anti Api 난연효과
4. Anti Air / Water Proof 방수효과
5. Anti Fungal, Kimia 항곰팡이, 항산성 및 알칼리
6. Simple and Quick Construction 빠르고 간편한 시공
7. Long Duration 오랜 수명

PROFILE

전제품 8mm Polyethylene Foam 열접착

1. 35mm Trimdek
930mm
35mm
2. 25mm Trimdek
1040mm
25mm
3. 35mm Spandek
920mm
35mm
4. Boltless-Seaming Type 110mm (Roll on Site)
420mm
110mm
5. Boltless-Seaming Type 55mm
736mm
55mm
6. Genteng Metal (기 외)
82mm / 35mm
20mm

저희 회사 전 제품의 철판은 호주가 본사인 PT. NS BLUE SCOPE INDONESIA로부터 공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제품은 8mm Polyethylene Foam을 열접착 하고 있습니다. Aluminium Foil부착제품도 생산합니다.

공사건설현장

Parkland Indonesia

Posco Indonesia

“리브라를 2020년 하반기에 출시하겠다. 물론 각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은 한다.”
 지난 12일(현지 시각) 페이스북이 만든 리브라협회의 버트런드 페레즈 최고운영책임자(COO)가 프랑스 경제일간지 레제코에 밝힌 말이다. 페이스북은 그전까지 미국 정부의 가상 화폐 리브라 출시 반대에 “내년 출시를 유보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번복한 셈이다.

리브라는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들이 페이스북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돈을 보낼 수 있는 가상 화폐다. 리브라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수수료 부담 없이 송금과 결제가 가능한 혁신적인 결제 플랫폼이라는 기대와 달러와 같은 기존 화폐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동시에 받고 있다. 미국 의회는 지난 7월 페이스북의 리브라 개발 책임자를 불러 청문회까지 열었고, 프랑스·독일 등 유럽 주요국도 반대를 공식화했다. 비트코인을 비롯해 4000종이 넘는 가상 화폐가 등장했으나, 이렇게 논란이 커진 것은 리브라가 처음이다.

◇27억명 쓰는 가상 화폐 등장 초읽기
 페이스북은 지난 6월 리브라 출시 계획을 밝히면서 “사진을 전송하듯 결제와 송금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예상되는 리브라 이용자 규모는 더 커진다. 우버(차량공유), 스포티파이(음악스트리밍), 이베이(전자상거래) 등의 기업 서비스도 리브라로 결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찾을 뿐이다.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도 지난 7월 청문회 직후 열린 페이스북 콘퍼런스콜에서 “리브라 출시가 얼마나 오래 걸리든 최선을 알아내는 접근법을

17조원 규모의 독자 가상 화폐 ‘CBDC’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발행 예정인 리브라보다 1년 정도 앞서는 것이다. 이미 중국 공상은행·건설은행 등 은행권과 알

면 그 대가로 가상 화폐를 지급하는 것)을 통해 손에 넣을 수 있다.
 반면 리브라는 페이스북을 비롯한 리브라 개발 기업들의 모임인 ‘리브라협회’에서 가상 화폐를 발행하고, 거래를 관리한다. 사용자는 달러·유로 등 실제 화폐를 주고 리브라를 구입해야 한다. 페이스북은 달러를 준비금으로 입금한 뒤 그에 해당하는 일정량의 리브라를 발행한다. 다른 가상 화폐의 약점인 심한 가격 변동성을 극복하겠다는 의도다. 달러·유로와 같은 안정적인 실물 자산과 환율을 연동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널뛰기할 우려가 거의 없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리브라가 소수 기업이 발행·관리를 독점하기 때문



27억명이 ‘저커버그 화폐’ 쓰면 ... 전의 법칙이 바뀐다

폐북 가상화폐 ‘리브라’ ... 내년 시행 밀어붙이는 까닭
 - 현금·카드 대신 ‘리브라’ 시대

폐북에서 물건 사거나 돈 보낼 때 달러 대신 가상화폐 ‘리브라’ 이용... 스마트폰만 있으면 수수료 무료
 - 美·독일·프랑스 정부 반대
 달러 가치 하락, 기존 금융 붕괴... 돈세탁·테러자금에 쓰일 우려도

리브라	리브라와 비트코인	비트코인
참여한 소수 기업이 금융기관의 역할	발행 및 관리	책임지는 관리자 없이 개인 간 거래하는 방식
리브라가 하나의 화폐처럼 달러·유로 등과 환율 연동	화폐와 연동	화폐와 별개 가치 등락 심해
실제 화폐를 주고 구입	취득 방법	채굴 (컴퓨터 암호를 풀어서 코인 획득)
1000건(예상)	초당 거래 처리 속도	7건
페이스북·우버·마스터카드 등 리브라 협회 회원사	주요 사용처	일부 온·오프라인 매장

리브라는 페이스북 이용자라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달러와 같은 실제 화폐로 리브라를 구입해 페이스북 메시지의 전자지갑 ‘캘리브라’에 저장한 뒤 클릭 몇 번으로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메시지에 등록된 지인에게 가상 화폐를 보낼 수도 있다. 카카오톡에서 카카오페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다. 식당·마트 등에서 결제할 때에는 메시지 앱에 뜨는 지불 코드를 스캔해 지불할 수 있다. 실제 돈처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리브라가 주목받는 이유는 27억명에 이르는 페이스북 사용자 때문이다. 현재 가장 많은 사람이 쓰는 단일 통화는 15억명이 사용하는 중국 위안화다. 만약 리브라 출시를 준비하는 기업·단체 모임인 ‘리브라협회’에 가입한 글로벌 기업들의 고객까지 합치면

금융권에서는 “리브라의 등장으로 기존 통화인 미국 달러의 지위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리브라만으로 모든 생활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달러나 유로화의 가치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리브라의 성공은 은행·핀테크 업체 등 기존 금융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에선 리브라가 국경 없이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돈세탁이나 테러 단체 자금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 측은 최근 “어떤 국가 통화와도 경쟁할 의도가 없으며 각국 정부와 협의를 거치겠다”고 하면서도 의지를 꺾지는 않았다.
 원래 예정했던 출시 시점을 내년 상반기에서 반년가량 늦

택하겠다”며 출시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미국·유럽 정치권에 로비 총력전
 페이스북은 리브라 출시를 계기로 다양한 금융 사업을 펼치는 ‘글로벌 결제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리브라 개발 참여 기업이 내는 예치금과 전 세계 수십억명이 지불할 리브라 구입비만 수십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페이스북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광고 수익의 성장세가 최근 들어 둔화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페이스북은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로비스트를 고용하고 각국 정치권·금융권과 접촉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저커버그 CEO는 지난 19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리브라 출시 문제를 꺼냈을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국가 주도로 가상 화폐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 리브라 허가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이 자국 기업인 페이스북을 규제하는 사이 중국에 디지털 화폐 패권을 뺏길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은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 축제인 11월 11일 ‘광군제’에 맞춰



리바바·텐센트 등 IT(정보기술) 기업이 유통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데이비드 마커스 캘리브라(페이스북의 가상 화폐 회사) 대표는 지난 7월 미 청문회에서 “(리브라를 출시하려는) 실리콘밸리의 혁신을 가로막으면 다른 곳(중국)이 먼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치권에서도 “리브라 도입이 좌초될 경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리브라, 비트코인과 다른 방식... 오르락내리락 변동성 적어]
 ‘리브라’는 가상 화폐 발행과 관리 방식이 비트코인과 다르다. 가상 화폐의 대표로 여겨지는 비트코인은 채굴(컴퓨터에서 복잡한 암호를 풀

에 ‘탈(脫)중앙화’를 기치로 내건 가상 화폐와는 거리가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페이스북은 거래 처리 속도를 높여 실생활에서 폭넓게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나온 가상 화폐는 느린 거래 처리 속도 때문에 통화 화폐로 사용하기 어려웠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은 1초당 7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다. 결제가 한꺼번에 몰리면 결제 시간은 1건당 10분까지 늘어난다. 페이스북은 내년 출시할 경우 서비스 초기에는 초당 1000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점차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IT(정보기술) 업계 관계자는 “리브라의 거래 처리 속도도 1초당 2만4000건을 처리하는 비자카드와 비교하면 차이가 크지만, 가상 화폐를 실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기에는 충분한 속도”라고 말했다.
 리브라 (Libra)
 미국 페이스북이 내년에 발행하는 가상화폐다. 27억명에 이르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와츠앱 이용자들이 서로 돈을 보내거나 물건을 구매할 때 쓸 수 있다. 달러·유로와 연동해 가치가 급격하게 변하던 기존 가상화폐와 달리 안정적이다.

코이카,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가는 따뜻한 상생협력 모색의 장



▲ 2019 KOICA 인도네시아 해외봉사단 파견 기관장 회의 (사진=코이카 제공)

우리나라 대외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이미경) 인도네시아 사무소는 9월 27일 오전(현지시각) 자카르타 소재의 크라운 플라자 호텔에서 '2019 KOICA 인도네시아 봉사단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코이카 인도네시아 사무소 정회진 소장은 개회사에서 코이카 해외 봉사단은 '나눔과 섬김'의 자세로 인도네시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동시에 서로의 문화와 사람을 존중하고 배우는 글로벌시민으로서 상생협력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코이카와 파견기관 및 각 지방정부들은 서로 간에 봉사단원과 자문단들을 위한 지원과 배려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인도네시아는 신남방정책의 핵심적인 아세안 국가로서 양국간 다방면의 협력증진이 강조되는 국가이면서, 우리나라 개발협력 측면에서도 1990년 제1차 해외봉사단원 5명이 최초로 파견된 이래 현재까지 3900여 명이 활동하였고, 현재에도 30여 명의 월드프렌즈 코리아(World Friends Korea) 봉사단과 자문관이 인도네시아에 2년동안 파견되

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만들어 가는 따뜻한 개발협력 현장의 이야기들을 만들고 있는 나라이다.

금번 회의는 현재 우리정부가 '사람, 평화, 번영', 이른바 '3P'를 핵심 가치로 추구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현장에서 우리나라 봉사단원들의 활동성공담을 인도네시아 정부와 봉사단활동 기관장들과 서로 공유하고, 다함께 앞으로의 협력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향후 코이카 인도네시아 사무소는 매해 정기적으로 실시해온 기관장 회의를 봉사단 파견 사업에 대한 수혜기관들의 의견을 경청, 수용하는 자리로 더욱 활성화하고, 우리 봉사단을 통해 인도네시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신남방 정책현장의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는 정회진 코이카 인도네시아 사무소장, 인도네시아 국가사무처 Nanik Purwanti 국장, 고등교육부 대외협력 국장 Nada Marsudi 을 비롯하여, 코이카 봉사단 및 자문단 파견 기관 대표자, 관련 정부부처 관계자 등 약 70여 명이 참석하였다.

전기버스 제조업체 MAB, 내년 전기 자전거 생산 공장 건설



인도네시아 전기버스 제조업체 모빌 아낙 방사(PT Mobil Anak Bangsa, MAB)는 전기 오토바이 생산을 위해 내년 배터리와 모터 생산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18일자 보도에 따르면 MAB의 스테판 공동 창업자는 "리튬 이온 전지를 중국에서 수입한 후 국내서 전기

자전거 배터리 팩으로 가공할 계획이다. 그 후, 모터 자체 생산도 시작하고 싶다"고 말하며 "전기버스의 현지 조달 비율은 11월에 40%에 달할 전망이다. 향후 전기버스용 배터리 팩과 모터를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되면, 현지조달비율을 60%로 확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MAB는 중부자바주 드막에 있는 15헥타르의 공장에서 전기버스를 조립 생산하고 있다. 월 생산 능력은 100대이다. 올해는 신모델 개발과 생산, 연구개발 등의 비용으로 2억 달러를 투자한다.



경성대,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유학생 동문 간담회 개최

경성대학교(총장 송수건)는 지난 2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경성대 졸업 인도네시아인 유학생 대표 동문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동문 간담회 행사에는 대외협력처 김학선 부처장이 참석하여 학교 현황 설명과 모교 및 동문 간의 교류 확대, 동문회 활성화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하며 훈훈한 자리를 만들었다.

김학선 부처장은 "경성대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한 인도네시아 동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꾸준히 경성대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경성대는 2006년 인도네시아 현지 한국어학당 설립 이래 총 203명의 인도네시아 출



▲인도네시아 졸업생 동문회 단체사진 (경성대학교 제공)

신 졸업생들을 배출하였으며, 현재 63명의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경성대는 인도네시아 해외동문회를 중심으로 국내와 현지를 연결하는 해외취업,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 다양한 국제화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경성대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GKS 외국인 우수 자비 장학생 수 전국 1위의 쾌거를 거두었으며, 선정된 장학생 중 인도네시아 학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부산일보]

창원시, 인도네시아 무역사절단 수출상담액 1억 불 넘는다

창원 방산 무역사절단 15개 기업 성과 도출



▲ 창원시 인도네시아 무역사절단이 수출 상담액 1억 불 등 풍성한 성과를 달성했다.

창원시 인도네시아 무역사절단이 수출 상담액 1억 불 등 풍성한 성과를 안고 귀국길에 올랐다.

창원시는 22일 인도네시아 무역사절단이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현지기업들과 수출 상담을 추진, 수출상담액이 1억 불을 넘는다고 밝혔다. 특히 7건의 업무협약, 인도네시아 무기 구매담당이 참여한 기업교류회를 통해 수출교두보와 경제교류 파트너쉽 마련 등의 풍성한 성과도 거뒀다.

특히 지난 20일 열린 수출상

담회에는 40개사 100여 명의 인도네시아 바이어가 참가하는 등 현지 기업과 언론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창원방위산업중소기업협의회 회원사 15개 기업이 참여한 이번 무역사절단은 '창원시 방위산업 중소기업 인도네시아 수출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창원시가 주최하고 창원산업진흥원과 경남KOTRA 지원단의 공동주관으로 이뤄졌다.

수출상담회 외에도 인도네시아 방사청 페리 트리스나 뿌드라 대령 구매 담당을 비

롯한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관계자,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 OKTA),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기업교류회, 인도네시아 오일·가스 전시회 참여 등 다양한 경제협력을 넘어선 교류 행사도 추진됐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인도네시아와 대한민국의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방위산업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들이 신흥해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창원기업의 방산 수출 확대 가능성을 실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3대 무기 수출국에 속하는 인도네시아는 창원시의 상반기 아세안 나라 중 25%의 교역 최대 증가세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오는 11월에는 인도네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 방산기업을 초청해 '핀포인트 초청 상담회'를 추진해 관내 방산중소기업의 판로 개척 및 수출 성과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뉴스경남]

재무부, 독립보세구역 제도 도입... 보세구역 이용자 스스로 물품 반출입 가능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최근 수출입업자가 스스로 물품 반출입을 관리할 수 있는 ‘독립 보세구역(Kawasan Berikat Mandiri)’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보세구역 업무를 관세국에 보고, 직접 승인을 받을 수 있어 수출입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20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자는 독립보세구역의 업무를 앱을 통해 관세국으로 보고하는 구조로 관세국은 온라인상에서 이를 모니터링한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자 조건은 ◇ 안전성 평가

에서 ‘낮은 위험’으로 분류, ◇ 납세의무자 상태 확인(KSWP) 유효 상태, ◇ 수출입 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AEO) 인증 보유자, ◇ 취급 화물량이 많을 경우 - 등으로 정해져 있다.

관세국의 해루 국장은 “이 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인정된 사업자는 119개 업체에 달한다. 현재 보세구역에 있는 사업체 수는 1,372개이다. 2021년에는 모든 사업자에 적용할 계획이다”라고 언급했다.

해루 국장은 이어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등 주변국에 비해 인도네시아는 물류비용의 비율이 높다”고 지적하며 업무의 효율성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인도네시아 섬유 9개사 도산 위기... 업계는 세이프가드 요청



인도네시아 섬유 산업에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9개사가 도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가 수입 섬유 제품이 대량으로 유입되어 시장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이다.

현지 각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무역협회는 무역부 상업거래감시위원회(KPPI)에 대해 상류 제품에서 최종 제품까지 포괄적으로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것을 요청하는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섬유업체협회(API)의 아데 회장은 “섬유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과 데이터를 정리하여 KPPI에 제출할 것”이라며 “세이프가드 발동을 요청하겠다”

고 밝혔다. 제안하는 세이프가드 관세는 실 5%, 직물 7%, 의류 15~18%다. 상류 제품의 관세율을 낮게 설정하는 한편 의류 등 높은 가공 제품의 관세율을 높이는 것을 제안한다.

현재 직물의 관세율은 0%로 설정되어 있다. 폴리에스터단섬유(PSF) 등 섬유 원사에는 관세가 적용된다.

한편 직물 수입량은 2008년의 30만 톤에서 지난해에는 90만 톤으로 3배 급증했다.

건설연, 인도네시아에 건설기술 수출 물꼬 튼다

현지서 국내 우수기업 소개하는 해외기술설명회 개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한승헌, 이하 건설연)이 올 상반기 아세안 건설시장 가운데 최대 수주국인 인도네시아에서 건설기술 수출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건설연은 지난 2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현지에서 해외기술설명회 ‘2019 KICT Construction Technology Fair in Indonesia’를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MPWH) 샤리프 부르하누딘 건설개발총국장을 비롯한 유관부처 공무원, 인도네시아 유력 건설기



업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우수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게 건설연이 보유한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진출의 디딤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를 통해 인도네시아 현지 적용 가능성이 높은 건설연 보유 기술과 한국 중

소·중견기업의 우수기술이 소개됐다. 특히 건축물 기반침하 방지 기술, 인접국 말레이시아에 대규모의 기술수출을 이뤄낸 우수 교량기술, 스마트시티 구축에 필수적인 3D맵 플랫폼 기술 등이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아세안 지역 인프라 수주는 119억 달러를 기록하며 중동의 92억 달러를 넘는 우리나라 최대 수주처로 부상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올해 상반기 아세안 건설수주량의 4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16위의 높은 GDP 수준에도 불구하고

하고 지역간 개발 격차가 크고, 1만7000개 이상 섬으로 구성된 지리적 특성 때문에 기반침하, 인구밀집, 교통체증 등 해결해야 할 건설 인프라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 건설연은 충분한 사전미팅을 통해 한국 참가기업이 인도네시아 발주처 및 현지 기업과 최소 3건 이상 기술수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1:1 비즈니스 미팅 자리를 마련했다.

건설연 입주 스타트업인 커넥트브릭, 건설연 패밀리기업인 (주)동성기업, (주)우신건설산업, 보라샘, 보성포리테크(주), 토옹이앤씨(주) 그리고 건설연이 각각 PT.Siskem Aneka Indonesia 등 현지 기업 및 협회와 업무협력을 위한 MOU 등을 총 7건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승헌 원장은 “해외기술설명회는 매년 해당 국가에서 우리 기업의 신시장 개척 및 실질적인 시장 확대를 이어진 경우가 많았다”며, “특히 인도네시아는 신남방지역의 주요 경제국이자 최대 수주처로서 한국 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 확대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연의 해외기술설명회는 지난 2015년 베트남에서 최초 개최된 이래 신남방·신북방정책 전략국가인 캄보디아,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매년 개최돼 왔다. 지금까지 총 5회의 해외기술설명회에 우리 중소기업 36개사가 참여해, 베트남, 미얀마,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현재까지 약 335억원의 직·간접적인 매출을 거뒀다.

[건설이코노미뉴스]



산업용 윤활유 전문대리점

PT. YUSUNG JAYA ABADI

구) PT. YUCOM JAYA MANDIRI

고객과 함께 한 18년!

신뢰와 감동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산업용 윤활유 전문대리점

PENZSTAR, AGIP

순정 OIL만 취급
일반 윤활유 상시 보유
48시간 이내 배송



Ruko Tataka Puri Blok C1 No. 30,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Telp : 021 598 0222, 021 598 2666 Fax : 598 4666
유인대 : 0811 834 398 E-mail : hanshyu@hotmail.com

기업은행, IBK인도네시아 은행 공식 출범

‘인도네시아 No.1. SME 전문은행’ 비전 현지 진출 중기 지원...23년까지 영업망 55개로 확대

IBK기업은행(은행장 김도진)은 지난 1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IBK인도네시아 은행 출범식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이 날 출범식에는 김도진 기업은행장, 김창범 주인도네시아 대사, 김창범 주인도네시아 대사, 유관기관 담당자와 현지 진출 중소기업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김도진 은행장은 기념사를 통해 “58년간 쌓아온 중소기업금융 역량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겠다”며, “나아가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모범적인 금융기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IBK인도네시아은행은 ‘인도네시아 No.1. SME 전문은행’을 비전으로, ‘2023년 해외이익의 25%, 해외자산의 15%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한국데스크, 외환 전담부서를 설치해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현재 30개의 영업망을 2023년까지 55개로 늘릴 계획이다.

현지 은행 인수를 추진한 기업은행은 지난 1월 아그리스(Agris)은행과 미트라 니아가(Mitra niaga)은행을 인수하고, 지난 8월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으로부터 두 은행의 합병승인을 받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미얀마

진출 등 다른 해외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해 IBK아시아 금융벨트를 완성하겠다”며, “해외에 진출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행장은 현지 영업 현황 등을 확인하고, 현지 진출 중소기업을 방문해 금융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시간도 가졌다.



한국 점유율 1위!

한신 에어 콤프렛

콤프렛서하면 한신입니다!

▲ 기업은행 IBK 인도네시아 출범 (사진=IBK인도네시아 제공)



한신 신제품 출시

1. AT 시리즈:
기존 인버터보다 **4%** 더 에너지절약 가능한 모델
2. GRH5G 시리즈:
냉각 성능 **10% UP!!**
오일 함유량 **10% DOWN!**
3. HBH 시리즈: 5~20마력 소형 오일프리

대표 / 유성열 : 0812 8037 0303 담당 / 한상윤 과장 : 0822 9999 1447
TANGERANG Ruko Tatac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담당 / 정연오 이사 : 0815 1938 0006
JEPARA Ruko, Jl. Gotri Jepara, Ds. Kalipucang Wetan RT. 001 RW.
 002 No. 3 & 4 Kec. Welahan Jepara – Jawa Tengah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전세계 재외동포 749만명... 2년전보다 6만명 증가

외교부 '2019 재외동포현황' ... 유럽·호주 한인입양인 첫 포함



▲ 해외동포 어린이가 추는 아름다운 부채춤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당 우면당에서 열린 '세계 한민족 공연예술축제'에서 카자흐스탄의 남손가무단이 부채춤을 추고 있다.

우리나라 재외동포는 전 세계 180개국에 749만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외교부가 25일 공개한 '2019 재외동포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재외동포는 749만3천587명으로 2016년 말(743만688명)보다 0.85%(6만2천899명) 늘어났다.

이는 재외공관이 보고한 주재국의 인구 관련 통계자료와 한인회 등 동포단체 조사자료 등을 근거로 추산한 재외동포 수치다. 외교부는 2년마다 수치를 발표한다.

이번에는 유럽과 호주에 사는 한인 입양인 4만7천506명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북미 지역 한인입양인(이번 조사 기준 11만5천66명)은 앞선 조사들에도 포함됐었다.

재외동포를 지역별로 보면 동북아시아가 328만6천36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북미(278만8천732명), 유럽(68

만7천59명), 남아시아태평양(59만2천441명), 중남미(10만3천617명), 중동(2만4천498명), 아프리카(1만877명) 등 순으로 많았다.

국가별로는 미국(254만6천952명), 중국(246만1천386명), 일본(82만4천977명), 캐

나다(24만1천750명), 우즈베키스탄(17만7천270명), 베트남(17만2천684명) 순으로 재외동포가 많이 거주하고 있다.

재미동포는 2016년보다 2.2%(5만4천700명) 증가한 반면 재중동포는 3.4%(8만6천640명) 줄었다.

베트남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가 38.7%(4만8천226명) 급증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우리 기업의 투자와 진출이 활발한 영향 때문이라고 외교부는 분석했다.

'재외동포 749만명'은 재외동포재단법 기준에 의한 재외동포다. 재외동포재단법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韓民族)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 거주·생활하는 사람을 재외동포로 정의한다. 의도와 상관없이 장기체류하는 재외국민이 포함된다는 뜻이다. [연합뉴스]

인도네시아, 여성 혼인 최저연령 19세로 상향... 개정안 통과



인도네시아 의회 본회의가 16일 혼인법 '1974년 제1호'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17일자 현지 인베스터데일리과 미디어인도네시아의 보도에 따르면, 이로써 인도네시아 여성의 법정 혼인 최저연령이 16세에서 19세로 상향된다.

개정된 법안은 남녀의 혼인 가능 연령을 규정한 혼인법 제7조 1항이다.

요하나 수사나 엠비세(Yohana Susana Yembise) 인도네시아 여성아동인권보호부장관은 "혼인법 개정은 아동 결혼에서 어린이와 가족을 지키는 데 이어 출산에 따른 모

자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어린 나이에 결혼을 강요당한 여성 3명이 혼인 가능 연령의 상향을 요구한 소송에서 아동·여성단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혼인법의 일부 조항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3년 안에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도록 했다.

'신부가 아닌 소녀들'(걸즈 낫 브라이드·Girls Not Brides)의 레이첼 전무는 "인도네시아 의회의 이번 결정은 소녀들이 소년들과 같은 삶의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소녀들의 결혼이 법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아동 결혼을 막기 위해 법과 정책이 필수적이지만 애당초 아동 결혼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니 수도 이전, 국내외에서 디자인 공모전으로 진행

바수끼 하디물요노(Basuki Hadimuljono) 인도네시아 공기업·국민주택부 장관은 동부 깔리만탄주에 건설되는 새로운 수도의 디자인을 국내외에서 공모할 방침을 나타냈다. 곧 응모 접수를 시작한다고 17일자 현지 언론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공공사업·국민주택부에 따르면, 디자인 공모전은 2단계로 나누어 실시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디자인을 모아 5개월 이내에 3개의 안을 선정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해외에 문호를 열고 후보 3개 안을 더욱 향상시키는 디자인을 모집해 그 중 하나를 선택한다. 현재는 디자인 공모전의 심사 위원 선정을 진행하고 있다.

조꼬 위도도(통칭 조꼬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난 8월 말 새 수도 이전지가 보르네

오섬 인도네시아령 북 뿌나잠 빠세르(Penajam Paser Utara)군과 꾸파이 까르파느가라(Kutai Kartanegara)군 일부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466조 루피아로 추정하고, 국가 예산으로는 도로 등 일부 인프라 정비만 진행하고 나머지는 민관협력사업(PPP) 등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새로운 수도 건설은 2020



년 말부터 시작한다. 한편 바수끼 장관은 지난 13일 발리에서 개최된 '인도네시아 건설협회(AKI) 국제 회담'의 개회식에서 건설사업자들에게 새로운 수도 건설 사업에 대한 참여와 투자를 호소했다.

톱슨 목금형(톱슨발형)

철판 커팅 레이저 신규 가동

- 생산성 향상
- 짧은제작기간
- 정밀성
- 품질 향상
- 경제성



철판,아크릴, 합판, 빼그라이트등 레이저커팅



종이, 고무, 가죽, 스폰지,아스테이지, PC, 필름등 모든 자재 커팅금형의 최적금형의 대명사 "톱슨 목금형"

우수한 첨단장비로(CAD, Laser, Auto Banding)최상의 톱슨 목형을 제공하여

신속성, 정밀성, 경제성이 월등하며 신발,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절단, 생산하는데 최상의 칼 금형

PT. BUSAN LASER INDONESIA

DELTA SILIKON 2 JL. KALIANDRA BLOK F6/3D CICAU-CIKARANG PUSAT BEKASI
TEL : (021) 2957 - 7591~2 FAX : (021) 8990 - 5309
H.P : 0812 8815 9157 E-MAIL : busan1144@gmail.com
http ://www.bsllaser.com

Steel Laser Cutting, Thomson Mold, Silling Knife

부산 레이저 목형

부산광역시 진구 신천대로 65번길 38호 (범천1동)
TEL : (051) 637-9791~3 FAX : (051) 637-9790
H.P : 010-3842-3239 E-mail : busan114@korea.com
http://www.bsllaser.com

Steel 레이저절단, 씨링칼, 톱슨금형, 특수 칼금형

인니 투자조정청-한국 KIND, 민관협력사업 강화 MOU 체결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과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20일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인프라 사업개발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고

밝혔다. 양측은 현지 인프라·도시개발 투자환경 정보 교환 등에 대한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체결식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Business Forum : Invest Indonesia' 행사(주한 인니 대사관 주최) 중에 진행됐다. 비즈니스 포럼에는 80여개의 한국 기업에서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인도네시아 인프라·도시개발 투

자환경 정보 교환 및 사업안건 발굴, 타당성조사, 출자·투자 등 관련하여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의 인도네시아에서의 투자 실현액은 2014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누계로 75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보면 기계·전자 산업이 전체의 15%를 차지하고 가장 많다. 이어 광업(13%), 가스·수도(9%), 신발, 고무·플라스틱(각 8%)순으로 이어진다.

포스코건설, 인니인 대상 '건설기능인력 양성센터' 개설



포스코건설은 16일부터 자카르타에서 '건설기능인력 양성센터(Construction Craft Training Program)'를 개설해 1기 25명을 대상으로 해외 사업장에서 필요로 한 초급기능인력 교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건설기능인력 양성센터는 해외 현지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건설관련 이론과 실습교육을 실시한 다음 현지 사업장에 채용을 알선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포스코건설은 기능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해외 현지 지역사회는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형 사회공헌활동으로 환영받고 있다. 이 센터에서는 2주 동안 걸쳐 전기, 설비, 조적(組積), 용

접, 안전 분야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1기에 이어 올해 11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100명의 초급기능인력을 양성하며, 교육생들에게는 교육수당, 작업복, 숙식, 각종 교육 기자재가 제공된다. 또한 포스코건설은 교육 수료생들을 자사가 자카르타에서 시공 중인 '라자왈리 플레이스(Rajawali Place)' 현장 협력회사에 취업을 알선할 계획이다. 라자왈리 플레이스는 인도네시아 대표적 화교기업인 라자왈리 그룹(Rajawali group)이 발주한 사업으로, 자카르타 중심업무지구의 옛 포시즌 호텔을 개축(改築)하고, 55층 아파트 1개동과 27층 오피스 1개동을 신축한다. 준공은 내년 9월 예정이다. 이번 교육과정에 선발된 시덕(20)씨는 "그동안 일용직 근로자로 건설현장에서 보조 업무를 해왔는데 교육생으로 선발돼서 기쁘고, 앞으로 실력 있는 용접 기술자가 되는 것이 꿈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문예총 제6회 종합예술제 개최



라(단장 허민경) 자카르타 어린이 합창단(JKCC회장 김혜정) 아르페 여성합창단(단장 김영희) 음협(회장 유은영) 아버지 앙상블(단장 김종규) 색소폰동호회(회장 박의태) 한바패(회장 박형동) 한인 무용단(단장 정방울) 국악사랑(단장 장방식)이다.

초청 단체로 한인꽃꽂이회, 샌드 애니메이션(작가 지니), 정가단 "아리" 등이 출연을 하며 디카시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한국문화원) 26점도 선보일 예정이다.

다양한 체험행사도 준비된다. 예술제가 열리는 기간동안 '사과나무 열매' 사랑메세지 걸기 행사를 비롯하여 10월 19일 플래시몹 '나는 대한민국이다' 10월 20일 샌드아트 체험, 10월 21일 부채그림그리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일주일간의 예술제 기간동안 부대행사로 진행될 릴레이 미니콘서트는 10월 21일~25일까지 1부 2부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1318 청소년예술 경연대회는 10월 20일 일요일 1시 본선 경연으로 치를 예정이다.

몇해 전부터 문예총 소속 16개 단체는 전시회, 공연을 격년으로 번갈아가기로 하여 서협(회장 송판원)과 한지공예(대표 김경애), 극동방송 합창단(단장 신정일)등 몇 단체는 작년에 행사에 참가하여 올해는 참가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 문예총에 가입한 자카르타 사진동호회(회장 최종윤)는 문예총과

문예총(회장 박형동)은 올해 10월에 롯데쇼핑 에비뉴에서 '제 6회 종합예술제'를 성대히 개최할 예정이다. 행사의 규모는 1주일간의 전시회, 주말동안 이틀간의 문화공연, 부대행사로 평일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을 이용한 릴레이 미니 콘서트, 청소년 13~18 예술경연대회 등으로 성대히 치뤄질 예정이다. 특히, 1318청소년예술경연대회는 최근에 청소년을 위한 열린문화의 연결고리에 첫 단추를 끼우는 의미로도 큰 기대를 모으고있다. 13살부터 18살까지의 꿈과 끼를 갖고 있는 청소년이면 자신있게 도전해 볼만 하다.

초청 전시로는 한인 꽃꽂이회 및 한국에서 초청되는 단체로 샌드 애니메이션(작가 지니), 정가단 "아리" 등이 참가하여 다채로움을 한층 더해준다.

문예총 소속 단체 중 이번 전시회와 공연에 참가하는 단체는 전시단체로 미협(회장 신문철) 문협(회장 서미숙) 월화차회(회장 이춘순)이며 공연단체로 KISO 한인 오케스트

함께 발맞추어 풍성한 잔치를 위해 힘을 보태주고 있다. '예술의 꽃을 피우다' 주제에 걸맞도록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다채로운 향을 수 있도록 10월 행사에 많은 교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K-Content	K-Performance	K-Exhibition	K-Food
K-Content Expo Indonesia 3 rd - 8 th Oct Central Park Mall Play with Hangeul 9 th Oct Korean Cultural Center Korea-Indonesia Film Festival 10 th - 13 th Oct CGV K-Culture & Art Asso. Festa 19 th - 25 th Oct Lotte Shopping Avenue Opening of Korea Corner 21 st Oct Binus University Korea Travel with Traveloka 1 st - 31 st Oct For More Info, Scan QR Code	FLYING Extreme Performance 16 th - 17 th Oct Ciputra ArtSpace Gyeonggi K-POP Concert 19 th - 20 th Oct Istora Senayan, GBK Best K-Pop Cover in Indonesia 19 th - 20 th Oct Istora Senayan, GBK Korean Culture Brand Festival 26 th Oct Ciputra ArtSpace K-POP Bucketlist with Hamwhalife 26 th Oct FX Mall Asia Taekwondo Hanmadang 26 th - 27 th Oct Clubber Asia Traditional Orchestra 6 th Nov Bali, Serbia	Gyeonggi Culture & Tourism 19 th - 20 th Oct Istora Senayan, GBK Dicapoem 19 th - 25 th Oct Lotte Shopping Avenue Jakarta Int'l Premium Products 7 th - 9 th Nov JCC Study in Korea Fair 9 th - 10 th Nov JCC	Seoul Food From Home to Jakarta 4 th - 13 th Oct Seasonal Tastes, Westin Korea Resto Promotional Festa 1 st Oct - 10 th Nov Visit Website for More Info Lotteria Promotional Festa 1 st Oct - 10 th Nov Visit Website for More Info Korean Food Festival 1 st - 31 st Oct Visit Website for More Info
K-Event For More Info, Scan QR Code		Your Korean Dream Come True 20 th Sep - 12 th Oct K-Passport & SNS Hashtag 11 th Oct - 12 th Nov K-POP Concert Giveaway 22 nd Sep - 20 th Oct K-Travel 20 Days Challenge Event 17 th Oct - 1 st Nov	

킹콩부대찌개, 인도네시아 해외 시장 진출

프랜차이즈 외식 전문기업 (주)에스엘에프앤비(대표 정순태)의 대표 브랜드 킹콩부대찌개가 자카르타에 소재를 두고 있는 PT. Olah Kuliner Berkah(대표 Danny Wiryanto)와 지난 9월 17일 인도네시아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업차 한국과 인연을 맺고, 한국을 자주 오가던 PT. Olah Kuliner Berkah의 Danny 대표는 당시 한국의 사업 파트너와 함께 우연히 방문한 킹콩부대찌개 맛에 매료됐다. 이후 직원들과 함께 방문해 킹콩부대찌개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한국 본사인 (주)에스엘에프앤비측에 먼저 마스터 프랜차이즈 체결 희망 의사를 전했다.

마스터 프랜차이즈 희망의사를 전달받은 (주)에스엘에프앤비는 지난 7월 '2019 인도네시아 국제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참가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PT. Olah Kuliner Berkah의 임직원들을 직접 만나 세부 사항을 논의 한 뒤 사전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이뤘으며 지난 17일 한국 본사에서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 Danny 대표는 "인도네시아에서의 한류는 유효하고, 경쟁력 있고, 사업을 새롭게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지의 사업파트너와의 조연과 검토를 통해 킹콩부대찌개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한식 아이템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 본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의 여러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 킹콩부대찌개를 선택한 데에는 외국 사람들의 입맛에도 조화롭게 어울리는 맛이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무엇보다 킹콩부대찌개 본사의 경영마인드와 철학이 믿을 수 있었고, 함께할 파트너로서 신뢰감



▲ 킹콩부대찌개,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인도네시아 해외 시장 진출 정순태대표(사진좌측)와 Danny 대표(사진우측)

이 깊었다"고 말했다.

킹콩부대찌개 본사 (주)에스엘에프앤비의 정순태 대표는 "킹콩부대찌개의 역사가 벌써 9년으로 그 동안 해외 진출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인 가운데 인도네시아에 정식 진출하게 돼 굉장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인도네시아 진출을 발판으로 해외에서도 킹콩부대찌개가 경쟁력 있는 외



식 아이템이 되길 희망하며, 우리가 추구해온 정도를 지키는 바른 외식 창업 문화가 해외에서도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노석래 부대표는 "킹콩부대찌개 제1호 가맹점 오픈도 가맹점주가 고객으로 우연히 방문한 후 맛에 반해 시작됐다"며 "이번 인도네시아의 Danny

대표 또한 동일한 사례로 우리 킹콩부대찌개 맛에 매료된 고객이 가맹점으로 확장된 비슷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와 전혀 알지 못하던 인도네시아 현지의 한 기업이 우리 브랜드를 찾아 직접 마스터 프랜차이즈로 계약까지 이루게 된 운명 같은 우연의 만남이 성사돼 기쁘다"며 "앞으로 인도네시아에 킹콩부대찌개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한국 본사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킹콩부대찌개,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인도네시아 해외 시장 진출

한편 킹콩부대찌개 인도네시아 현지 매장은 오는 2020년 3월 자카르타에 첫 매장을 오픈할 예정이며 발리, 수라바야 등의 지역에서 추가 입점을 준비 중에 있다. 또한 킹콩부대찌개는 인도네시아에 이어 대만 시장 진출을 위해 오는 10월 4일부터 7일까지 대만 국제프랜차이즈 전시회에 참가한다. [서울경제]

인니 최대 택시회사 블루버드 "전기차 2천 대 도입할 것"

승차 공유업체 그랩 · 고젝과 경쟁에 수익 급감한 상황

약 3만대의 차량을 보유한 인도네시아 최대 택시회사 블루버드(Blue Bird)가 테슬라와 중국 비야디(BYD)의 전기차 2천 대를 도입할 계획을 내놓았다.

블루버드 통신회사 노니 뿌르노모 블루버드그룹 사장이 지난주 자카르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커다란 도약을 결심했다"며 전기차 도입 계획 등 혁신 방안을 소개했다고 23일 보도했다.

블루버드는 1965년 뿌르노모의 할머니가 설립한 회사로, 그는 올해 5월 아버지로 부터 최고 경영자(President Director) 자리를 넘겨받았다. 미국 뉴욕의 노란 택시와 홍콩의 빨간 택시가 유명한 것

처럼 인도네시아에서는 파란색 블루버드 택시가 대표 택시로 자리매김했다.

2015년에는 블루버드 주가가 급등했고, 사상 최고 수익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후 동남아시아 '투 툽' 승차 공유업체인 그랩(Grab)과 고젝(Go-Jek)이 인도네시아에서 일반 승용차로 사실상 택시 영업을 하면서 수익이 급감했다.

그랩과 고젝은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금을 유치, 요금 할인 경쟁을 펼쳐 이들 회사의 공유 차를 타면 블루버드 택시 요금보다 저렴하다.

이로 인해 블루버드의 수익이 3년 만에 23% 급감했고, 최근 분기별 수익은 역대 최

저치로 떨어졌다.

뿌르노모 사장은 "전기차는 일반 차량보다 운영비가 40% 적게 들고, 30% 더 많은 수익을 낸다. 시범사업을 통해 고무적인 신호를 확인했다"며 전기차가 경영 위기의 타개책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블루버드그룹은 얼마 전부터 자카르타의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에서 전기 택시 25대를 시범 운행 중이다. 현재 블루버드그룹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공항과 시내 본사에만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가 '전기차 산업 허브'를 꿈꾸며 각종 혜택을 발표하고, 쇼핑몰 등 공공장소에 충전시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 노니 뿌르노모 블루버드그룹 경영자(파란 상의)와 전기 택시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니켈과 코발트, 망간을 생산하기에, 2022년부터 전기차 생산을 시작해 2025년에는 총 자동차 생산량의 20%를 전기차가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실시간으로 택시 이용 수요를 파악해 요금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운영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한다.

[연합뉴스]

F1 LOGIX
We are anywhere you are

www.f1-logix.com

인도네시아의 새벽을 여는 기업!

Leading Logistic Provider

4PL
항공, 해상운송
내륙운송
통관대행
물류 컨설팅
물류 OS
W&D 사업

F1 LOGIX
Wisma Korindo 9th FL,
Jl. MT. Haryono Kav. 62
Jakarta, 12780, Indonesia

Telp. : +62-21-797-6237
Fax : +62-21-797-6015
E-mail : kor@f1-logix.com